

가야(伽倻)의 관모(冠帽)에 대(對)하여  
-성주가암동파괴고분출토금동관을 중심으로-  
(星州伽岩洞破壞古墳出土金銅冠을 中心으로)

金 基 雄

(문화재전문위원)

## I.

관모(冠帽)는 원래 머리카락이 흐터짐을 방지하고 또 방한(防寒)과 방서(防暑)를 위하여 쓰인 것이라고 믿어지나 점차로 이러한 실용성을 떠나 장식적인 요소를 띠게 되었으며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지배층의 의표로서 다른 장신구에 비하여 존중히 여겨짐과 동시에 특별한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고분(古墳)에서 여러 개의 관모가 드러나 널리 알려졌고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보겠다.<sup>1)</sup>

그러나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고분(古墳)에서 발견되는 관모(冠帽)의 예(例)는 발굴 조사된 고분의 수와 다른 장신구에 비하여 지극히 소수이며 또 유존 상태에 있어서도 신라(新羅)의 금제보관(金製寶冠)을 제외하고는 양호하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관모(冠帽)의 연구(研究)는 자연히 신리관(新羅冠)에 치중케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관모(冠帽)의 연구(研究)에 새로운 자료(資料)가 발견되었는데 곧 본고(本稿)에서 소개하는 성주군벽진면가암동파괴고분발견(星州郡碧珍面伽岩洞破壞古墳發見)의 가야금동관(伽倻金銅冠)이다. 이제 이 가야금동관(伽倻金銅冠)의 소개에 앞서 우선 그간에 알려진 가야(伽倻)의 관모(冠帽)를 살펴 보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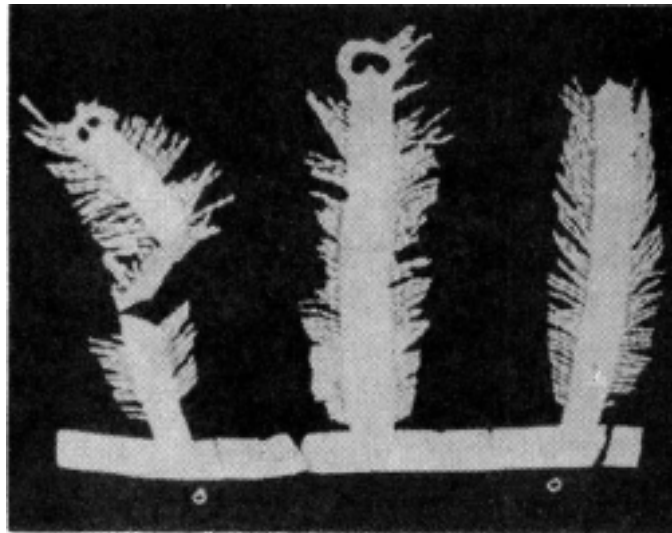
## II.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伽倻)의 관(冠)에는 금관(金冠)과 금동관(金銅冠)이 있는데 그 대부분(大部分)이 금동관(金銅冠)이고 금관(金冠)은 출토고분(出土古墳)이 명확하지 않은 두 예(例)가 있을 뿐이다. 우선 금동관(金銅冠)을 살펴보면

1) 의성탑리고분제일묘곽출토(義城塔里古墳第一墓槨出土)의 금동관(金銅冠)<sup>2)</sup>

: 넓이 3cm, 길이 약 52cm의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

형(寶珠形)이고 좌우양(左右兩)쪽 가장자리가 우모(羽毛)같이 생긴 입식(立飾) 3개(個)를 정면(正面)과 좌우(左右) 측면(側面)에 각각 3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한 형식(形式)의 것인데 보주형(寶珠形) 선단부(先端部)에는 중심선(中心線) 좌우(左右)에 2개(個)의 원공(圓孔)을 뚫었고 관대(冠帶) 양(兩)쪽 측면(側面)에는 수식(垂飾)을 달아매기 위한 작은 고리 2개(個)가 달려있다. 그리고 관대(冠帶)의 상하(上下) 가장자리 둘레에는 두 줄의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이 돌려있고 이 두 줄의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 사이에는 연속삼각점선문(連續三角點線文)이 있으며 관대(冠帶)의 중앙(中央)에는 횡(橫)으로 일열(一列)의 타출원형좌(打出圓形座)를 만들고, 거기에 원형(圓形)의 소보요(小步搖) 18개(個)를 금동줄로 꼬아 달아매었다. 3개(個)의 입식(立飾)중에서 가장 큰 정면(正面)의 것은 높이 약 35cm, 넓이 약 1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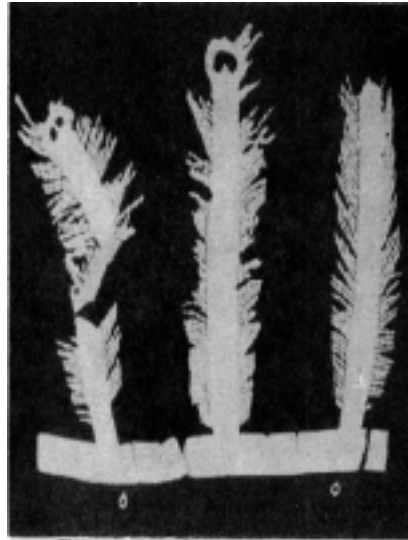


〈圖版 1〉 義城塔里古墳第一墓槨出土金銅冠

<圖版 1> 의성탑리고분제1묘곽출토금동관(義城塔里古墳第一墓槨出土金銅冠)

2)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의 금동관(金銅冠)(기일(其一)<sup>3)</sup>)

): 넓이 약 28.7cm의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이고 높이 20.5cm인 입식(立飾) 3개(個)를 정면(正面)과 좌우 측면(側面)에 각각 1개(個)씩을 2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3개(個)의 입식(立飾)은 모두 좌우(左右)로 작은 가지가 뻗어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선단(先端)은 보주형(寶珠形)이다. 그리고 관대(冠帶)와 입식(立飾)의 가장자리 둘레에는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이 돌려 있고 앞 면(面)에는 다수(多數)의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가 달려 있으며 관대양측(冠帶兩側)에는 수식(垂飾)을 달기 위한 작은 고리가 달려 있다. 금동관(金銅冠)은 높이는 22.6cm, 관대경(冠帶徑) 약 18.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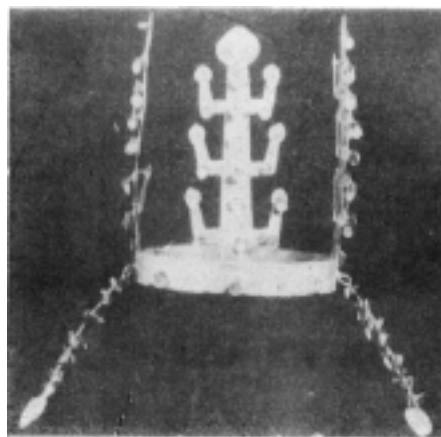


(圖版 1) 義城塔里古墳第一墓出土金銅冠

<圖版 2>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금동관(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金銅冠)

3) 이 병철씨수장금동관(李秉喆氏收藏金銅冠)<sup>4)</sup>

: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인 입식(立食) 3개(個)를 정면(正面)과 좌우(左右) 측면(側面)에 각각 1개(個)씩을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3개(個)의 입식(立飾)은 모두 좌우(左右)로 작은 가지가 뻗어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있으며 관대(冠帶) 양측(兩側)에는 수식(垂飾)이 달려 있다. 이 금동관(金銅冠)은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기일(其一))과 부산동래구복천동제1호분(釜山東萊區福泉洞第1號墳)에서 드러난 것과 동일한(同一) 형식(形式)의 예(例)이다.



(圖版 3) 李秉喆氏所藏金銅冠

<圖版 3> 이 병철씨소장금동관(李秉喆氏所藏金銅冠)

4) 창녕교동제7호분출토(昌寧校洞第7號墳出土)의 금동관(金銅冠)<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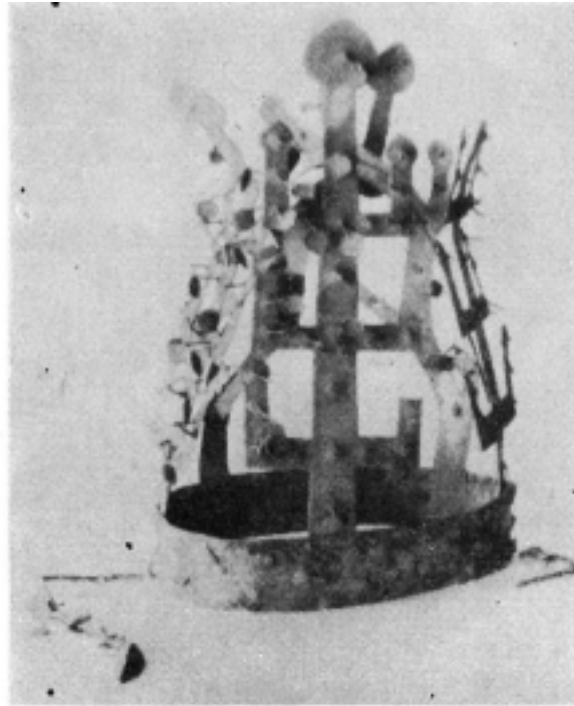
: 넓이 3cm이고 상하(上下)의 가장자리에 파상점열문(波壯點列文)을 돌친 관대(冠帶)에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의 입식(立飾) 3개(個)를 각각 3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입식(立飾)의 선단(先端)은 보주형(寶珠形)이고 좌우(左右) 가장자리에는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이 돌쳐 있으며 앞 면(面)에는 다수(多數)의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가 달려 있다. 금동관(金銅冠)의 높이는 약 22cm, 관대횡경(冠帶橫經) 18.2cm이다.

5) 부산동래구북천동제1호분출토(釜山東萊區福泉洞第1號墳出土)의 금동관(金銅冠)<sup>6)</sup>

: 넓이 약 2.6cm의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을 이루고 높이 16.5cm인 입식(立飾) 5개(個)를 각각 2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5개(個)의 입식(立飾)은 모두 좌우(左右)로 작은 가지가 뻗어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있으며 관대(冠帶)의 상하(上下) 가장자리에는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을 돌리고 상하(上下) 평행점열문(平行點列文) 사이에는 연속삼각점선문(連續三角點線文)을 돌렸다. 그리고 5개(個)의 입식(立飾) 앞 면(面)에는 16매(枚)의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매어 달았다.

6)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의 금동관(金銅冠)(기이(其二))<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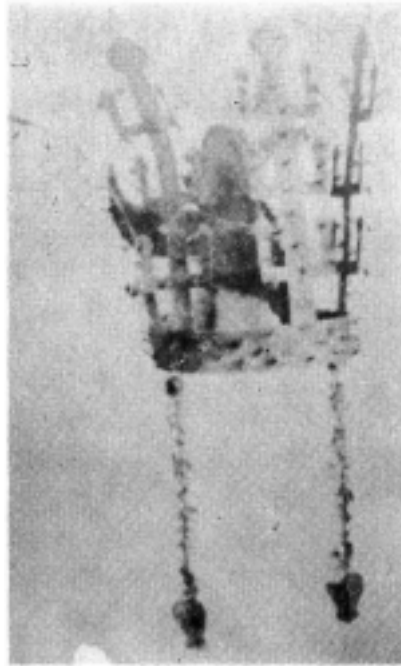
: 넓이 3.8cm의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을 이루고 있는 입식(立飾) 5개(個)를 각각 2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정면(正面)과 좌우(左右) 측면(側面)의 입식(立飾) 3개(個)는 좌우(左右)로 작은 가지가 뻗어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있으나 후면(後面)의 좌우(左右)로 뻗은 작은 가지도 서로 엇갈리어 특각형(鹿角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中央)에서 직교(直交)하여 아치형(形)을 이룬 2개(個)의 띠대(標帶)가 있고 그 교차점(交叉點) 정부(頂部)에는 반구형(半球形)의 금동좌판(金銅座板)을 높고 그 위에 3개(個)의 가지가 달린 원통형(圓筒形)의 입주(立柱)를 세웠으며 가지 끝에는 소보요(小步搖)가 달려 있다. 도 관대(冠帶)와 입식(立飾)의 가장자리 둘레에는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이 돌쳐있고 앞 면(面) 전면(全面)에는 약간 오무러 나온 심엽형소보요(心葉形小步搖)가 달려 있다. 이 금동관(金銅冠)의 높이는 30.6cm, 관대경(冠帶徑) 18.1cm, 연속「산」자형입식(連續「山」字形立飾)의 높이 약 27.2cm, 특각형입식(鹿角形立飾)의 높이 약 29cm, 아-치형 띠대(形標帶)의 넓이 16.6cm이다. 이런 형식(形式)의 관(冠)에는 경주(慶州)의 서봉총(瑞鳳塚)에서 출토(出土)한 신라금관(新羅金冠)이 있다.



〈圖版 4〉 大邱飛山洞第三七號墳第一石室出土金銅冠

〈圖版 4〉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금동관(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金銅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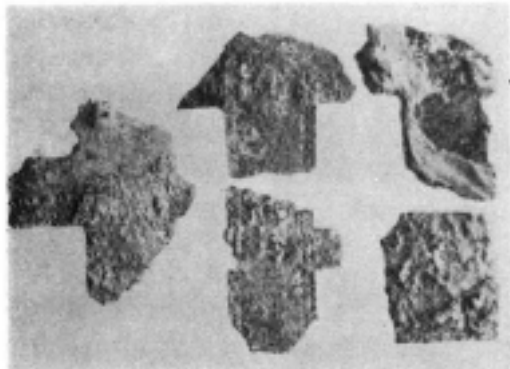
7) 양산부부총출토(梁山夫婦塚出土)의 금동관(金銅冠)(주인유품(主人遺品)<sup>8)</sup>  
 : 넓이 약 4.2cm의 얇은 금동판제(金銅板製)의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을 이루고 있는 입식(立飾) 5개(個)를 각각 2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하였는데 정면(正面)과 좌우(左右) 측면(側面)의 입식(立飾) 3개(個)는 좌우(左右)로 작은 가지가 뻗어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있으나 후면(後面)의 좌우측면(左右側面)의 입식(立飾) 2개(個)는 파상(波狀)으로 굴곡(屈曲)되고 좌우(左右)로 뻗은 작은 가지도 서로 엇갈리어 률각형(鹿角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대(冠帶)의 상하(上下) 가장 자리에는 점열문(點列文)으로 거치문(鋸齒文)을 돌쳤고 입식(立飾)의 가장자리 둘레에는 두줄의 점열문(點列文)을 돌쳤으며 관대(冠帶)와 입식(立飾)의 앞 면(面)에 금동 줄로 약간 오므려 나온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달아매고 관대(冠帶)의 좌우측면(左右側面)에 금동제(金銅製)의 긴 수식(垂飾)이 달려 있다. 이 금동관(金銅冠)의 높이는 약 38cm, 관대경(冠帶徑) 18.8cm, 연속「산」자형입식(連續「山」字形立飾)의 높이 33.3cm이다. 이런 형식(形式)의 관(冠)에는 경주(慶州)의 금관총(金冠塚), 천마총(天馬총), 황남동제98호분출토(皇南洞第98號墳出土)의 신라금관(新羅金冠)이 있다.



〈圖版 5〉梁山夫婦塚出土金銅冠

<圖版 5> 양산부부총출토금동관((梁山夫婦塚出土金銅冠)

8) 대구내당동제55호분출토(大邱內唐洞第55號墳出土)의 금동관잔결(金銅冠殘缺)<sup>9)</sup>  
:연속 「산」 자형입식(連續「山」字形立飾)의 단편(斷片) 일부(一部)만 발견(發見)되었으  
므로 그 원형(原形)은 알 수 없으나 보고자(報告者)는 금관총(金冠塚), 양산부부총(梁山  
夫婦塚),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의 예(例)와  
같은 형식(形式)의 금동관잔결(金銅冠殘結)로 보고 있다.



〈圖版 6〉大邱內唐洞第五五號墳出土金銅冠殘缺

<圖版 6> 대구내당동제55호분출토금동관잔결(大邱內唐洞第55號墳出土金銅冠殘缺)

위에서 보아 온 금동관(金銅冠)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의 전부(全部)이다. 다음에는 출

토고분(出土古墳)이 명확(明確)하지 않은 개인수장(個人收藏)의 금관(金冠) 2개(個)를 보면,

1) 전고령부근고분출토(傳高靈附近古墳出土)의 금관(金冠) <이 병철씨수장품(李秉喆氏收藏品)><sup>10)</sup>

: 넓이 3.6cm, 길이 67.1cm의 얇은 금판제(金板製)의 관대(冠帶)에 높이 8.5cm의 화초형 입식(花草形立飾) 4개(個)가 달려 있는데 화초형입식(花草形立飾)은 좌우(左右)로 각각 3개(個)씩 엽형(葉形)이 나왔고 정부(頂部)는 보주형(寶珠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대(冠帶)의 앞 면(面)에는 타출점열문(打出點列文)으로 상하(上下)에 각각 평행선대(平行線帶)를 한줄씩 돌리고 그 내부에 두줄의 거치문선(鋸齒文線)을 서로 교차(交叉)시켜 룡형(菱形)을 이루게 하였으며 또 등간격으로 배치된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한줄씩 금사(金사)를 꼬아 매달았다. 화초형입식(花草形立飾)에는 가장자리에 이중점열문(二重點列文)을 돌치고 내부공간(內部空間)은 대각선(對角線) 같은 점열선문(點列線文)으로 장식하고 군데군데에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매달았다. 이 금관(錦冠)의 높이는 11.5cm, 관대경(冠帶徑)은 20.7cm, 입식(立飾)의 높이는 8.5cm이다. 이러한 형식(形式)의 관(冠)에는 나주반남면신촌리제9호분출토(羅州潘南面新村里第9號墳出土)의 백제(百濟) 금동관(金銅冠)과 일본인(日本人) 소창무지조수장(小倉武之助收藏)의 것이 있으며 가야관모(伽倻冠帽)와 백제관모(百濟冠帽)와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함에 있어 귀중한 자료(資料)라고 하겠다.

2) 전달성부근고분출토(傳達城附近古墳出土)의 금관(金冠) <소창무지조씨수장품(小倉武之助氏收藏品)><sup>11)</sup>

: 관대(冠帶)의 좌우입식(左右立飾)은 V자형(字形)으로 외만(外彎)한 화초형(花草形)이고 정면(正面)의 입식(立飾)은 좌우입식(左右立飾)보다 아주 낮은 보주형(寶珠形)인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의 금관(金冠)인데 전기(前記) 전고령부근고분출토(傳高靈附近古墳出土)의 금관(金冠)과 동형식(同形式)이고 고신라(古新羅)의 금관(金冠)중 가장 고식(古式)으로 보고 있는 전교동폐분발견(傳校洞廢墳發見)의 금관(金冠)과도 유사점(類似點)이 짙은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관(冠)과 더불어 흔히들 내관(內冠)이라고 부르는 관모(冠帽)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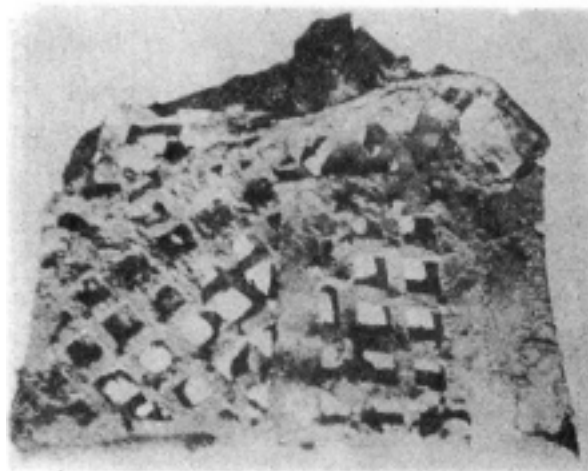
지금까지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관모(冠帽)는 관(외관(外冠))에 부수되는 내관(內冠)으로 보고 왔으나 고구려(高句麗)의 절풍관(折風冠)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관모(冠帽)도 단독(單獨)으로 사용한 일종(一種)의 관(冠)으로 보아야 하겠다. 종래에는 그 형태(形態)가 모형(帽形)을 이루고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의 금동관(金銅冠)의 부장상태(副葬狀態)와 나주반남면신촌리제9호분(羅州潘南面新村里第9號墳)의 금동관(金銅冠)의 출토상태(出土狀態) 등에 의하여 그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하나 천마총(天馬塚)이라든가 가야(伽倻) 및 일본(日本)의 다른 고분(古墳)에서 발견(發見)된 관모(冠帽)의 예(例)로 보아 내관(內冠)이라고 단정(斷定)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冠)의 일종(一種)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고분출토(古墳出土)의 관모(冠帽)에 있어 금속제(金屬製)인 전입식(前立飾)의 유존예(遺存例)는 비교적 많다고 하겠으나 완전(完全)한 관모(冠帽)의 유존예(遺存例)는 불과(不過) 2, 3예(例)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관모의 유존 예가 희소(稀少)함은 그 용재(用材)가 썩어 없어지기 쉬운 포백(布帛)피혁(皮革)백화수피(白樺樹皮) 등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관모(冠帽)에는 금동제(金銅製)와 백화수피제(白樺樹皮製)가 있고 이밖에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에서 발견(發見)된 사모잔결(紗帽殘缺)이 있다.

1) 양산부부총출토(梁山夫婦塚出土)의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 <주인유품(主人遺品)><sup>12)</sup>  
: 산(山)모양의 얇은 금동판(金銅板) 2매(枚)를 좌우(左右)로 부치고 그 가장자리에 복륜(覆輪)을 누르고 하부후반(下部後半)에는 2매(枚)의 금동판(金銅板)을 둘러감았으며 전반(前半)에는 복륜(覆輪)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구부러진 구형(矩形)의 금동식판(金銅飾板)을 부쳤다. 그리고 후반(後半)의 금동판(金銅板)의 하부(下部) 가장자리에는 점선(點線)으로 거치문(鋸齒文)을 돌치고 전반정면(前半正面)의 금동식판(金銅飾板)에도 윤곽(輪廓)에 따라 이중거치문(二重鋸齒文)을 돌렸으며 이 밖의 다른 표면(表面)에는 어린문(魚鱗文)으로 장식하였다. 이 관모(冠帽)의 주체부(主體部)는 변모형(弁帽形)이나 정면(正面)에 금동제(金銅製)의 조익형전(鳥翼形前) 입식(立飾)을 꽃았으므로 고구려(高句麗)의 조우삽관(鳥羽插冠(조우관(鳥羽冠)))과 동일형식(同一形式)의 것으로 보겠다. 한편, 『주서(周書)(권49구(卷49))』 이역전(異域傳) 백제조(百濟條)와 『북사(北史)(권 94(卷 94))』 백제전(百濟傳)에는 「기의복(其衣服) 남자락동어고려(男子略同於高麗) 약조배제사기관양상가시(若朝拜祭祀其冠兩廂加翅) 계사즉사(戒事則事).....」 이라고 하여 백제(百濟)에도 조우관(鳥羽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이런 형식(形式)의 관모(冠帽)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아진다. 이 조익형전립식(鳥翼形前立飾)은 윤곽(輪廓)에 따라 점선문(點線文)이 새겨졌고 전면(全面)에 걸쳐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가 매달려 있는데 천마총(天馬총), 황남동제98호분출토(皇南洞第98號墳出土)의 예(例)와 용재(用材)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동일형식(同一形式)의 것이다. 그리고 관모내면(冠帽內面)에는 녹색(綠色)의 비단을 부쳤다.

2) 대구내당동제55호분출토(大邱內唐洞第55號墳出土)의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sup>13)</sup>  
: 잔결(殘缺)이기는 하나 대체로 그 원형(原形)을 알아 볼 수 있다. 격자문(格子門)을 투작(透作)한 금동판(金銅板)을 접어서 만든 주체부(主體部)인 모(帽)에 두 날개를 펼친 새를 도안화(圖案化)한 전립식(前立飾)을 달았다.



<圖版 7> 大邱內唐洞第五五號墳出土金銅製冠帽

<圖版 7> 대구내당동제55호분출토금동제관모(大邱內唐洞第55號墳出土金銅製冠帽)

3)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2석실출토(大邱飛山洞第37號墳第2石室出土)의 백화수피제관모



(白樺樹皮製冠帽)<sup>14)</sup>

: 수매(數枚)의 백화수피(白樺樹皮)를 합쳐서 정부(頂部)가 둥근 모형(帽形)을 만들고 모형(帽形)인 주체부(主體部)의 정면(正面)에 금동제(金銅製)의 조형전립식(鳥形前立飾)을 단 형식(形式)의 관모(冠帽)인데 금동제(金銅製)의 심엽형소보요(心葉形小步搖)가 달린 수식(垂飾)은 의성탑리고분제1묘곽축토(義城塔里古墳第1墓槨出土)의 금동관립식(金銅冠立飾)과 동일(同一)하게 가장자리를 가위 같은 것으로 잘게 오린 다음에 하나 하나를 두서너번씩 꼬아 우모형(羽毛形)을 만들었다. 특히 이 관모(冠帽)의 전립식(前立飾)에는 꾸부린 중심(中心)의 좌우면(左右面)에 각각 1개(個)의 안형타출문(眼形打出文)이 돋쳐 있다. 이 문양(文樣)은 단순히 장식적 문양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고대(古代)의 각민족간(各民族間)에 있어 벽사(辟邪)의 한 방편으로 널리 행한 사시(邪視)(Evil Eye)적(的) 사상(思想)이 내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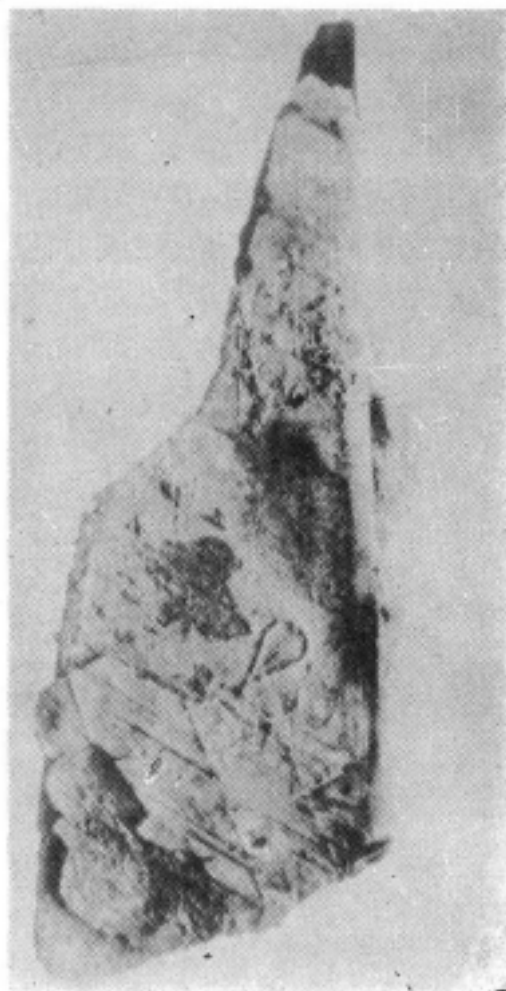


<圖版 8>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2석실출토백화수피제관모(大邱飛山洞第37號墳第2石室出土白樺樹皮製冠帽)

4) 양산부부총출토(梁山夫婦塚出土)의 백화수피제관모(白樺樹皮製冠帽)<sup>15)</sup>

:은제(銀製)의 조형전립식(鳥形前立飾)이 달려 있는 관모(冠帽)의 내면(內面)은 백화수피(白樺樹皮)를 종(縱)으로 그 외면(外面)은 횡(橫)으로 2매(枚) 겹쳐서 맞대어 붙였으며 표면(表面)에는 룡형(菱形)의 사행문(斜行文)을 새겼고 주위(周圍)에는 남아 있는 세공(細孔)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자리를 꿰맨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꼭 같은 형식(形式)의 은제전립식(銀製前立飾)이 대구비산동제34호분제1석곽(大邱飛山洞第34號墳第1石槨)에서 발견(發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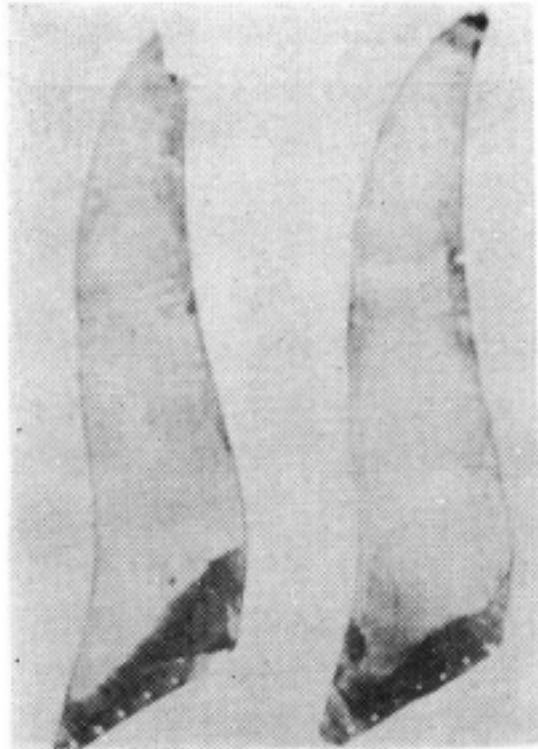
위에서 보아 온 관모(冠帽)의 유존예(遺存例) 이외에 금동제(金銅製) 또는 은제(銀製)의 전립식(前立飾)이 발견되었는데 이 전립식(前立飾)은 4형식(形式)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겠다.



〈圖版 9〉 大邱飛山洞第三四號墳  
第一石槨出土前立飾

〈圖版 9〉 대구비산동제34호분제1석곽출토전립식(大邱飛山洞第34號墳第1石槨出土前立飾)

I 형식(型式)은 은(銀) 또는 금동(金銅)의 박판제(薄板製)로서 조형(鳥形)이며 하부(下部)의 돌출부(突出部)를 제외한 가장자리에 두 줄의 점열문(點列文)을 돋쳤고 꾸부린 부분을 중심(中心)으로 좌우면(左右面)에 각각 1개(個)의 안형타출문(眼形打出文)이 있다. 이 형식(形式)의 것은 대구비산동제34호분제1석곽(大邱飛山洞第34號墳第1石槨)동제37호분제2석실(同第37號墳第2石室)성주성산동제1호분(星州星山洞第1號墳)창녕교동11호분(昌寧校洞11號墳)동제89호분(同第89號墳)등에서 발견(發見)되었다.



〈圖版 10〉 大邱內唐洞第五一號墳  
第二石槨出土前立飾

〈圖版 10〉 대구내당동제51호분제2석곽출토전립식(大邱內唐洞第51號墳第2石槨出土前立飾)

Ⅱ형식(型式)은 은(銀)또는 금동(金銅)의 박판제(薄板製)로서 조형(鳥形)의 양단(兩端)에 조익형판(鳥翼形板)을 못으로 부착(附着)한 것인데 가장자리에는 점열문(點列文)을 들렀으며 표면(表面)에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매단 것과 세 줄의 원형타출문(圓形打出文)을 들친 것이 있다. 금은제(金銀製)로서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매단 것은 의성탑리고분제2묘곽(義城塔里古墳第2墓槨)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 등에서 발견(發見)되었으며 용재(用材)가 확실치 않은 삼중원형타문(三重圓形打文)이 들쳐 있는 것은 창녕교동제11호분출토예(昌寧校洞第22號墳出土例)가 있고 가장자리에 점열문(點列文) 한줄을 들린 것은 대구내당동제51호분제2석곽(大邱內唐洞第51號墳第2石槨)에서 발견(發見)되었다.



〈圖版 11〉 市田次郎(上) 및 小倉武之助(下)收藏의前立飾

〈圖版 11〉 시전차랑(市田次郎) 상(上) 및 소식무지조(小食武之助) 수장(收藏)의 전립식(前立飾)

Ⅲ형식(型式)은 금동(金銅)의 박판제(薄板製)로서 두 날개를 펼친 새를 도안화(圖案化)한 것이며 전면(全面)에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를 매달았고 두부(頭部)가 거치형(鋸齒形)의 것과 돌출(突出)한 것의 두 종류(種類)가 있다. 전자(前者)는 의성탑리고분제3묘곽출토예(義城塔里古墳第3墓槨出土例)와 일본인(日本人) 시전차랑씨수장품(市田次郎氏收藏品)<sup>16)</sup>

이 있고 후자(後者)는 대구내당동제59호분출토품(大邱內唐洞第59號墳出土品)과 소식무지조씨수장품(小食武之助氏收藏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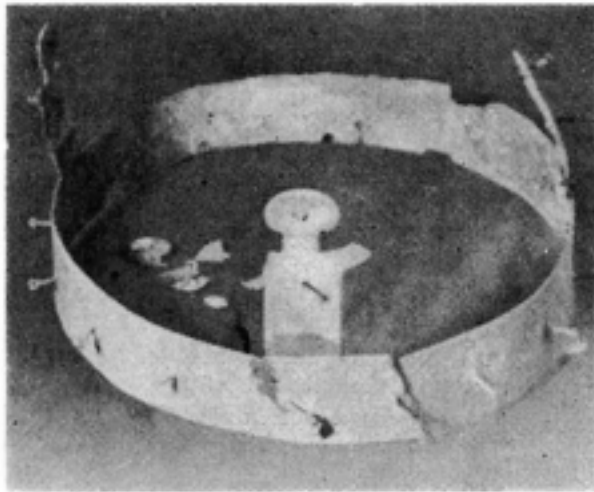
Ⅳ형식(型式)은 금동(金銅)의 박판제(薄板製)로서 세로 긴 장방형판(長方形板)의 하단(下端)에 가느다란 청동봉(靑銅奉)을 부착(附着)한 것으로서 장방형금동판(長方形金銅板)에는 금동선(金銅線)으로 소보요(小步搖)를 매단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금동제전립식(金銅製前立飾)은 길이 12.7cm, 장방형금동판(長方形金銅板)의 길이 8.8cm, 넓이 4cm이며 칠곡인동면황상동제1호분(漆谷仁同面黃桑洞第1號墳)에서 발견(發見)되었다.

이 밖에 사모(紗帽)와 견제모(絹製帽)의 발견예(發見例)가 있으나 부식(腐蝕)이 심하여 그 원형(原形)을 알아보기 어렵다. 보고서(報告書)에 의하면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에서는 베(마(麻)) 같은 것으로 보이는 부식탄화물(腐蝕炭化物)이 발견(發見)되었다고 하는데 보고자(報告者)는 사모(紗帽)의 잔결(殘缺)로 확정(確定)하였고 또 대구내당동제55호분(大邱內唐洞第55號墳)에서는 황(黃)담황(淡黃)녹(綠)흑(黑)갈색(褐色) 등의 유리제(製) 소옥(小玉)으로 장식한 견제모(絹製帽)로 보이는 유품이 발견(發見)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伽倻)의 관모(冠帽)는 대체(大體)로 이상(以上)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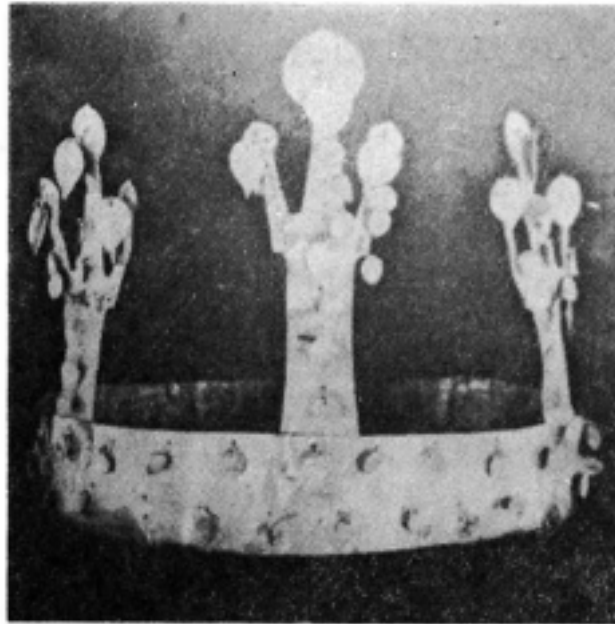
### Ⅲ.

본고(本稿)에서 소개(紹介)하는 금동관(金銅冠)은 가야(伽倻)의 영역(領域)이었던 경상북도성주군 벽진면 가암동소재(慶尙北道 星州郡 碧珍面 伽岩洞所在)의 속칭(俗稱) 약바위 뒷산 고구마 밭에서 1976年 2月 9일경(日頃)에 발견(發見)되었다고 하는데 관계조사관(關係調査官)(전문문화재관리국제3과 이 장열계장(前文化財管理局第3課 李 長烈係長))의 말에 의하면 발견장소(發見場所)는 구릉(丘陵)위에 위치(位置)한 고구마 밭이었고 이미 분구(墳丘)를 잃은 수혈식석곽분(竪穴式石槨墳)으로 추측(推測)케 된다. 그리고 금동관(金銅冠)은 사건처리중(事件處理中)이어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지금 보관중(保管中)이다.



〈圖版 12〉 星州伽岩洞破壞古墳出土金銅冠

〈圖版 12〉 성주가암동파괴고분출토금동관(星州伽岩洞破壞古墳出土金銅冠)



〈圖版 13〉 傳慶州校洞廢墳出土金冠

<圖版13>

이 금동관(金銅冠)은 넓이 2.7cm, 길이 56.5cm의 종이처럼 얇은 (두께 0.5mm) 금동박판(金銅薄板)으로 만든 관대(冠帶)에 선단(先端)이 타원형(타圓形)인 3개(個)의 입식(立飾)을 정면(正面)과 좌우(左右) 측면(側面)에 각각 2개(個)의 못으로 부착(附着)한 것이다. 관대(冠帶)는 후면(後面)에서 맞대어 2개(個)의 못으로 연결(連結)하였으므로 직경(直徑)이 17.6cm의 환(環)을 이루었으며 관대(冠帶)의 표면(表面)에는 타출이중점선문(打出二重點線文)으로 상하(上下)에 각각 평행선대(平行線帶)를 한줄씩 돌리고 그 내부(內部)에 거치문(鋸齒文)을 돌렸다. 그리고 관대(冠帶)의 중앙(中央) 즉 상하(上下)의 평행선대(平行線帶)중간(平行線帶中間)에는 횡일례(橫一例)로 등간격(等間隔)으로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 18개(個)를 금동사(金銅絲)를 꼬아 매달았다.

한편 입식(立飾)은 높이 4.6cm의 화초형(花草形)이며 좌우(左右)로 각각 하나씩 작은 가지가 뻗었고 그 선단(先端)은 정부(頂部)의 것과 동일(同一)하게 타원형(타圓形)을 이루었다. 입식(立飾)은 모두 가장자리에 윤곽(輪廓)을 따라 이중점선문(二重點線文)을 돌렸고 정부타원형(頂部타圓形)의 중앙(中央)과 입식(立飾)의 중심부(中心部)에 각각 원형소보요(圓形小步搖) 1개(個)씩을 배치하였다. 이 금동관(金銅冠)의 높이는 7.3cm, 관대경(冠帶徑)은 17.6cm, 입식(立飾)의 높이는 4.6cm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관(伽倻冠)은 이 병철씨소장(李秉喆氏所藏)의 전고령출토(傳高靈出土)의 금관(金冠)과 일본인(日本人) 소창무지조소장(所倉武之助所長)의 것 등 두 예(例)를 제외(除外)하고는 그 모두가 금동관(金銅冠)이고 또 입식(立飾)의 형식(形式)은 의성탑리고분제1묘곽출토(義城塔里古墳第1墓槨出土)의 우모(羽毛) 모양의 양식(樣式)을 제외하고는 초화형(草花形)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음이 특징적(特徵的)이라고 하겠으며 입식(立飾)의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금동관(金銅冠)만은 타원형(타圓形)이고 좌우(左右)로 뻗은 작은 가지도 각각 1개(個)로서 간화(簡化)된 형

식(形式)의 것이다. 이런 여러점(點)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알려진 관(冠)중에서는 가장 원시적(原始的)인 면(面)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筆者)는 그간 고분(古墳)의 구조(構造)라든가 특징적(特徵的)인 출토유물(出土遺物)을 통(通)하여 가야고분(伽倻古墳)의 편년(編年)을 시도(試圖)한 바 있다.<sup>17)</sup>

이 편년시안(編年試案)을 놓고 이 금동관(金銅冠)의 연대(年代)를 추정(推定)할 때 오세기전반경(五世紀前半頃)으로 보아지는 대구비산동제37호분제1석실출토(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出土)의 금동관(金銅冠)보다는 훨씬 앞서는 형식(形式)이고 또 신라보관(新羅寶冠)의 조형(祖型)으로 추정(推定)한 전경주교동폐분출토(前慶州校洞廢墳出土)의 금관(金冠)<sup>18)</sup>

보다도 용재(用材)는 물론(勿論) 전립식(前立飾)의 구조(構造)에 있어서도 간결(簡潔)단조(單調)함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간에 알려진 금관(金冠)또는 금동관(金銅冠)과 대비(對比)하여 보았을 때 이 새로이 발견(發見)된 가야(伽倻)의 금동관(金銅冠)은 가장 오래된 형식(形式)의 관(冠)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4세기경(世紀頃)으로 보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매장(埋葬)되었던 유구(遺構)인 고분(古墳)의 구조형식(構造形式)이 명확(明確)하지 않은 점(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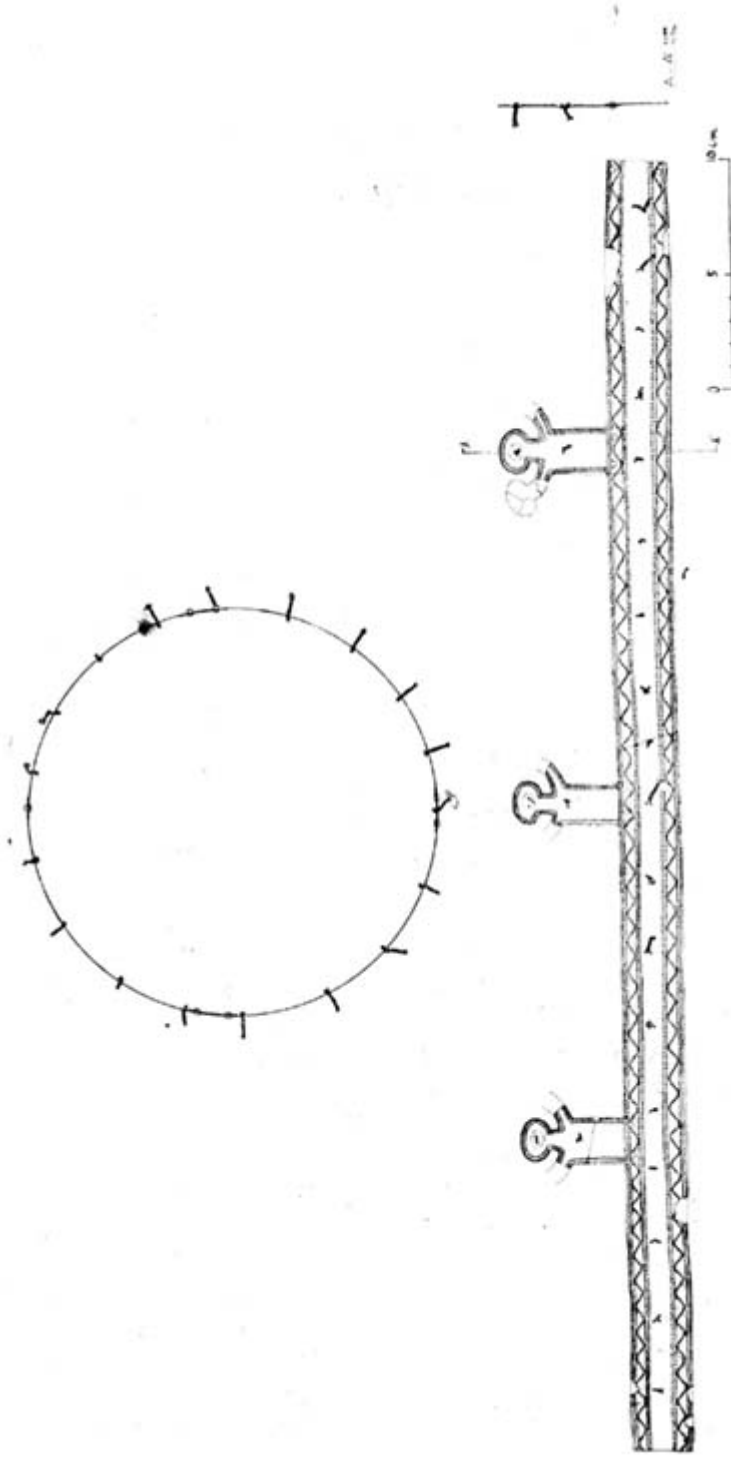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김 원용(金元龍)<sup>19)</sup>  
빈전경작(濱田耕作)<sup>20)</sup>

등 두 박사(博士)께서 논고(論考)한 바와 같이 이런 화초형(花草形)을 입식(立飾)으로 한 관(冠)은 남로지방(南露地方)의 스키타이 왕족(王族)의 고분(古墳)에서 일찍이 출토(出土)한 바 있어 그 조형(祖型) 또는 계통(系統)을 이와 연관시킬 수가 있어 앞에서 언급(言及)한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우리나라 관(冠)의 시원형식(始源形式)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要)컨데 이 새로이 발견(發見)된 성주가암동고분출토(星州伽岩洞古墳出土)의 금동관(金銅冠)은 우리나라 관모(冠帽)의 연구(研究)에 있어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됨은 재론(再論)할 바 없다고 보며 앞으로 보다 세밀(細密)한 연구(研究)에 기대(期待)하는 바이다.

추이(追而) 최근(最近)에 발견(發見)된 고령지산동제45호고분제1호석실(高靈池山洞第45號墳第1號石室)의 예(例)는 그에 관한 보고서(報告書)의 입수(入手)가 늦어 여기서는 언급(言及)하지 못하였다.<sup>21)</sup>

:



星州伽岩洞破壞古墳出土金銅冠寶測圖

성주가암동파괴고분출토금동관보측도(星州伽岩洞破壞古墳出土金銅冠寶測圖)



주(註)

- 1) 金 元龍 「新羅 金冠의 系統」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教史學論叢』(서울, 1965)pp. 285~294  
濱田耕作 「新羅の寶冠」 『考古學研究』(座右寶刊行會, 東京, 1935) pp. 335~359  
心 載完 李殷昌 「韓國의 冠帽」(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大邱, 1972)  
秦 弘燮 「百濟新羅의 冠帽冠飾에 關한 2, 3의 問題」 『史學志』(檀國大學校史學會, 서울 1973) pp. 1~34  
金 基雄 「新羅의 古墳」(學生社, 東京, 1976) pp 107~116  
金 基雄 「百濟의 古墳」(學生社, 東京, 1976) pp 155~159
- 2) 金 載元尹 武炳 「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3冊, 乙酉文化史, 1962) pp. 27~29
- 3)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朝鮮總督府, 京城, 1931) pp. 21~22
- 4) 『湖巖蒐集 韓國美術展 圖錄』(國立博物館, 서울) p. 99
- 5)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第60卷第四號(日本考古學會, 東京, 1975) pp. 35~36
- 6) 金東鎬 「東萊福泉洞第1號古墳調查報告」(『一九七〇年度古墳調查報告』(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 1971) p. 28
- 7) 『大正十二年度古墳調查報告』 p, 21
- 8) 馬場是一郎小川敬吉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本文(朝鮮總督府 『古蹟調查報告』 第五冊, 京城, 1927) pp.
- 9)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p. 70
- 10) 金 元龍 「傳高靈出土 金冠에 對하여」 『美術資料』 第十五號(國立博物館, 서울, 1971) pp. 1~6
- 11) 後藤守一 「日本古墳文化研究」
- 12) 『梁山夫婦塚 と其遺物』 本文, pp. 40~42
- 13)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pp. 70~71
- 14) 前掲書 pp. 29~30
- 15)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本文, pp. 42~43
- 16)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p. 91 및 17圖
- 17) 김 기웅 「가야의 고분」(학생사, 동경, 1978) PP. 206~222
- 18) 김 기웅 「신라의 고분」 P. 111
- 19) 金 元龍 「傳 高靈出土 金冠에 對하여」 『美術資料 第 十五號』(國立博物館, 서울, 1971) pp. 1~2
- 20) 濱田耕作 「新羅の寶冠」 『考古學研究』(座右寶刊行會, 東京, 1935) pp. 349~351
- 21) 尹容鎭金鍾徹 「大伽倻古墳發掘調查報告書」(高靈郡, 高靈, 1979) p. 216